

발 반사마사지가 유방암 환자의 수술 후 통증 및 기분에 미치는 효과

장 화 경(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조교)

연구목적 : 유방절제수술 환자들에게 적용한 발 반사마사지가 수술 후 통증과 기분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함으로써 비 침습적이고 독자적인 간호중재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기 위함이다.

연구설계 : 서울에 소재한 일개의 대학부속 병원에서 유방절제수술 후 외과병동에 입원중인 환자를 근접 모집단으로 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시차설계이다.

연구대상자 : 연구대상자는 대조군 12명과 실험군 16명으로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 유방암 진단을 처음 받은 자, 18세 이상의 성인 여성, 발에 개방성 상처나 발 종양 및 출혈성 질환이 없는 자, 의식이 명료하며 의사소통이 충분히 가능한 자, 발 반사마사지의 경험이 없는 자, 한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자로 하였다.

연구도구 : 통증측정은 통증강도에 시각적 상사척도(VAS)를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통증의 생리적 지표로 혈압과 맥박을 측정하였다.

기분측정은 Sutherland 등(1988)이 POMS를 수정, 보완하여 피곤, 불안, 혼란, 우울, 활력, 분노 6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시각적 상사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발 반사마사지는 기본이완기법 10분과 반사구마사지 10분간씩 총 20분간 적용하였다. 발 반사마사지는 본 연구자가 직접 시행하였으며, 연구를 위해 '대한발건강관리자협회'에서 30시간의 발 반사마사지 교육과정을 통해 이론과 실습을 훈련받았다.

연구분석 : 연구자료는 SPSSWIN 10.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분석 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각 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증은 χ^2 -test와 Mann-Whitney U test로, 실험군과 대조군의 차이검정은 Mann-Whitney U test로, 실험효과 검증은 Wilcoxon Signed Ranks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 실험군에서 전·후 비교 시 통증강도($z=-3.47$, $p=.001$), 이완기혈압($z=-2.67$, $p=.01$), 맥박($z=-3.44$, $p=.001$)이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 사후 비교 시에는 실험군과 대조군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기분은 실험군에서 전·후 비교 시 유의하게 호전($z=-3.52$, $p=.000$) 되었고, 실험군과 대조군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u=49.0$, $p=.03$).

결론 및 제언 : 유방절제수술 환자에게 발 반사마사지를 실시한 결과 기분을 제외한 통증강도, 혈압 및 맥박은 실험군과 대조군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전·후 비교 시 실험군에서 통증강도, 이완기 혈압과 맥박에서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발 반사마사지에 대한 추후 연구의 방향과 간호실무 적용에 있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 1) 추후 연구에서는 통증강도 뿐만 아니라, 통증의 질, 기간 등 통증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여 재연구 해 볼 것을 제안한다.
- 2) 추후 연구에서는 유방절제수술 이외의 수술종류에 따라 발 반사마사지가 통증감소 및 기분호전 효과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 3) 진통제 투약 시간을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할 것을 제안하며, 진통제 사용률 감소에 대한 효과검증 연구를 제안한다.
- 4) 발 반사마사지를 받은 환자들의 발 반사마사지 경험이 어떠한지, 대상자가 표현하는 반응을 근거로 통증과 기분 이외의 발 반사마사지의 제반 효과 파악을 위한 심층연구를 제안한다.
- 5) 발 반사마사지 시술시간과 마사지 후 시간경과에 따른 마사지 효과의 변화 양상을 시차를 두고 반복측정 및 발 반사마사지 횟수에 따른 효과 측정을 위해 종단적 연구를 제안한다.
- 6) 위약군이 없었기 때문에 발 반사마사지 효과인지, 환자와의 상호작용의 영향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추후연구에서는 실험군, 대조군, 위약군 세그룹으로 할당하는 연구방법을 제안한다.